



캡카

‘메이저 사냥꾼’ 브룩스 캡카(29)가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4·이상 미국)의 연습 라운드 제안에 대꾸도 하지 않았다.

우즈는 16일(현지시간) 영국 북아일랜드의 로열 포트러시 골프클럽에서 열린 제148회 디오픈 챔피언십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해 일화를 소개했다.

자신이 캡카에게 지난달 US오픈 준우승을 축하하며 올해 브리티시오픈을 앞두고 코스에서 연습 라운드를 함께 하자는 제안을 먼저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지만 아직 아무 답도 듣지 못했다”고 캡카에게 서운한 감정을 내비쳤다.

캡카는 2017년 US오픈, 지난해 US오픈과 PGA 챔피언십, 올해 PGA 챔피언십 등 최근 10차례 메이저 대회 가운데 네 번이나 우승한 ‘메이저 전문가’다.

우즈, 로열 포트러시 클럽 경험 全無
‘전문가’ 캡카에 연습 라운드 제안
캡카, 노하우 노출 우려에 거부

자신의 통산 6승 가운데 4승을 메이저에서 따낸 만큼 메이저에 강한 모습을 보인 캡카가 단순히 자신의 ‘메이저 우승 노하우’를 알려주기 싫어서 우즈의 연습 라운드 제안을 무시한 것은 아니다.

우즈 역시 올해 마스터스에서 정상에 오르는 등 메이저 대회 통산 15승을 달성한 현역 최고의 ‘메이저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올해 디오픈이 열리는 로열 포트러시 골프클럽은

1951년 이후 무려 68년 만에 이 대회를 다시 개최하는 장소다. 우즈는 14일 이 코스에 도착하기 전까지 로열 포트러시에서 공을 쳐본 일이 없었다.

그런데 바로 캡카의 캐디인 리키 엘리엇이 바로 북아일랜드 출신으로 이 로열 포트러시 골프장을 흔히 꿰뚫고 있다는 사실이 우즈가 캡카에게 연습 라운드를 제안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됐다.

2013년부터 캡카의 백을 멘 엘리엇은 선수로 활약하던 주니어 시절 이 코스에서 열린 대회에도 출전하는 등 로열 포트러시 골프클럽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 따라서 캡카로서는 우승 경쟁자가 될지도 모르는 우즈와 함께 연습 라운드를 하면서 자신의 코스 공략 노하우를 미리 공개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연합뉴스



우즈

문경찬 “올스타전 뒷문도 걱정마요”



김윤동 부상에 KIA 마무리 발탁…23경기 연속 무실점 등 맹활약
“생애 첫 올스타 출전 감격…많이 채우고 와서 후반기 매진할 것”



“2년 동안 야구하고 있는 기분이에요.”

KIA 타이거즈 투수 문경찬에게 올 시즌은 특별하다.

‘보통의 불펜 투수’로 시작했던 문경찬은 김윤동의 부상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뒷문 단속 역할을 맡았다.

문경찬은 한때 23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 속에 0.80까지 평균자책점을 낮추기도 하는 등 팀을 대표하는 마무리 투수로 맹활약했다.

하지만 거침없던 문경찬의 질주에도 잠시 제동이 걸렸었다. 지난 9일 삼성과의 원정경기에서 문경찬은 2-0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시즌 첫 불륜세이브를 기록했다. 경기가 2-3 패배로 끝나면서 시즌 첫 패배도 기록했다.

문경찬은 “공을 놓는 타점이 좋지 못했다. 좋았을 때보다 팔이 내려왔던 것 같다”며 “자신 있게 가운데로 공을 던지면서 승부를 했어야 했는데 타점이 좋지 못했고 또 그만큼 구위가 좋지 못했다”고 돌아봤다.

한 번 크게 흔들렸지만 문경찬은 불륜세이브 이후 첫 등판이었던 지난 14일 한화전에서는 1이닝을 깔끔하게 막아내며, 시즌 12번째 세이브를 수확했다.

문경찬은 17일 경기 전까지 올 시즌 34경기에 나와 35.1이닝을 소화했다. 지난해 55.1이닝에 아직 20이닝이 남아있지만 문경찬이 체감하는 이닝의 무게는 다르다.

지난해 문경찬은 톱 릴리프 역할을 하면서 승패

와 큰 상관없이 없는 상황에 많이 등장했었다. 하지만 올 시즌은 박빙의 상황에 등판해 팀 승리를 지키는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 수는 가장 많이 나왔던 지난해 32경기를 이미 넘어섰다.

“힘들지는 않냐”는 질문에 문경찬은 “어떻게 내 입으로 힘들다고 말을 하느냐(웃음). 괜찮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2년 동안 야구하고 있는 기분이다. 예전 기준으로 체감하기에는 마무리 캠프 막바지 정도는 하고 있어야 한다”고 웃었다.

그만큼 목직한 책임감으로 뛰었던 자신의 전반기가 길게 느껴졌다는 뜻이었다.

자신의 첫 풀타임 시즌이기도 한만큼 심신이 지칠 때도 됐다.

다행히 문경찬에게는 기분 전환을 하고, 에너지도 채울 수 있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문경찬은 감독 추천 선수로 생애 첫 올스타전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20일 올스타전 일정이 끝난 뒤에는 오는 26일 두산전까지 올스타브레이크다.

“아직도 올스타전에 나간다는 게 안 믿어진다”는 문경찬은 “올스타전은 말 그대로 나에게 올스타전이었다”고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문경찬은 “큰 무대에 오르면 실감이 날 것 같다. 좋은 동기부여가 될 것 같다”며 “올스타전에 다녀와서는 꼭 쉬면서 휴식기를 잘 보내고 후반기에도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지훈아, 빨리 나아서 형이랑 축구하자”

광주 FC 임원상, 투병 팬에 애장품·영상 편지 전달

“지훈아, 빨리 나아서 형이랑 같이 축구하자.”
광주의 ‘엄살라’ 임원상이 투병하는 팬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했다.

사연은 이렇다. 안산과의 홈경기를 앞두고 있던 지난 5일 광주 FC사무국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광주와 임원상을 열렬히 응원하는 아들이 투병 중이라 경기장을 찾아가지 못하는 만큼 유선상으로 임원상 삼행시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냐는 내용이었다.

광주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최지훈(13)군은 축구선수를 꿈꿨지만 약한 몸과 여러 사연으로 그저 멀리서 축구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최군은 축구에 대한 아쉬움을 광주를 응원하면서 달랬었다.

하지만 광주를 응원하며 희망을 기우던 최군에게 아테노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병마가 찾아왔다.

1년이 넘게 투병을 해야 했지만 최군의 광주 사랑을 막을 수 없었다. 중환자실에 머물면서도 주치의의 허락을 받아 사인볼을 끌어안고 잠들거나 간호사의 핸드폰을 빌려 광주 경기를 챙겨보곤 했다.

최근에는 임원상이 활약을 펼친 2019 FIFA U-20 월드컵이 최군에게는 희망이 되어주었다.

사연을 접한 임원상은 구단을 통해 본인의 애장품과 함께 영상 편지 전달을 부탁했다. 응원 메시지로 최군에게 힘을 불어넣기 위한 바람이었다.

임원상이 준비한 애장품은 2018 AFC U-18 챔피언십 예선 당시 입었던 유니폼이었다.

임원상은 “당시 이 유니폼을 입고 행복한 추억과 함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지훈이에게



광주FC 임원상이 투병 중인 팬을 위해 U20월드컵 예선에서 입었던 유니폼을 선물로 전달했다.

〈광주FC 제공〉

도 이 좋은 기운이 전해졌으면 한다”며 “홈경기장에서 함께할 날을 고대하고 있겠다”고 말했다.

최군의 아버지 최정훈(43)씨는 “임원상 선수의 응원 소식을 듣고 아이가 정말 행복해 한다. 무엇보다 빨리 낫고자하는 지훈이의 의지가 강해졌다”며 “광주라는 팀이, 축구라는 스포츠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됐다. 하루 빨리 아들과 함께 홈경기에 가서 광주 승격을 응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